

# '우화가 먹히는 시대'

인간에게 온갖 박해와 수모를 받아온, 전세계 동물들이 우리를 뒤흔쳐나 파리에 모여 국제 동물회의를 개최한다. 동물들은 저마다 개별적 특성과 경험에 비추어 인간들을 성토했고 급기야는 전쟁불사를 외치며 동물공화국을 세울 것을 결의한다. 그러나 전쟁도 결국은 자유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자 동물들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다. 자신들의 삶의 진상을 인간의 눈이 아닌 동물들 자신의 체험담으로 기록하고 편집해 책으로 출간하는 합법적인 지적 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최근 국내에 출간된 그랑빌의 우화(寓話) 《인터넷에 들어간 대머리 원숭이》(실천문학사)의 이와 같은 상황설정과 책에 수록된 갖가지 풍자는 그대로 인간사회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당나귀 그림자에 대한 재판》(C.M. 뷔일란트 지음, 문학동네)도 소유와 법, 국가와 사회, 정치에 대한 환멸과, 타락한 신앙의 문제를 당나귀 그림자를 놓고 재판을 벌이는 우스꽝스러운 인간들의 만화경을 바탕으로 우화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다소 추상적인 관념이나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치문제 등을 다른 소재나 등장인물을 빌려 알기 쉽게 풍자하는 '우화'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권력집단의 부패가 극에 달하거나 인간성이 훼손당하던 시기에는 이런 우화가 백성들에게 더욱 깊은 사랑을 받았다.

우화의 영어표기인 페이블(fable)은 원래 라틴어로 '만든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라

우화는 독립된 문학예술 장르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고대·중세의 유럽에서는 큰 인기를 누렸다.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치문제 등을 다른 소재나 등장인물을 빌려 알기 쉽게 풍자하는 '우화'는 특히 권력집단의 부패가 극에 달하거나 인간성이 훼손당하던 시기에 깊은 사랑을 받았다.

는 뜻.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S. 존슨은 "페이블은 도덕적 교훈을 이성을 갖지 못한 동물이나 무생물을 통해 그려내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렸다.

우화는 독립된 문학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고대, 중세 유럽에서는 큰 인기를 누렸다. 프랑스의 유명문인 라퐁텐은 "우리는 설교에서는 권태를 느끼지만 우화에는 기꺼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인다"는 말을 남겼으며 괴테는 《라이네케 여우》라는 우화를 직접 쓰기도 했다. I.A. 크릴로프, G.E. 레싱 등도 당시 많은 독자들을 확보했던 우화작가들이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리는 《이솝우화》는 B.C 6세기경 보잘것없는 노예였던 이솝이 자신의 눈에 비친 귀족중심사회의 허구를 천진한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날카

롭게 풍자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책이 되었다. 헤로도타토스와 플라톤 등 고대철학자들의 저술에도 거론될 정도로 파란을 불러일으킨 《이솝우화》는 우화의 풍자적 위력을 실감하게 한다.

인도의 《자타카》, 페르시아의 《로크만》, 아라비아의 《비트파이》 등과 용왕과 자라를 통해 봉건사상과 관료층의 풍속을 비판한 《토끼전》, 가장장 제도의 권위식과 남성의 탐욕을 질타한 《장끼전》 등 오래도록 빛을 잃지 않는 우화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비자금 사건, 5.18 특별법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요즘 서두에서 거론한 몇권의 우화집이 출판돼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출판인들의 표현대로 '우화가 먹히는 시대'인 것이다. 신문만평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도가 이런 분위기를 잘 설명해준다. 그것은 곧 우리가 참기 힘든 충격과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도저히 사실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일반인들의 가치기준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엄청난 권력층의 범죠행위,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 인면獸心(人面獸心)으로 반응하는 행태를 바라보며 지금 누군가의 손에 의해 역사에 남을 '우화' 한편이 씌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조차 든다. 블랙코미디 같았던 한해를 보내며 최근에 출간된 《태우가 기가 막혀》(새날)라는 유머집의 우화적인 제목이 눈길을 끈다. ❖

# 출판저널

통권 제182호/1995년 12월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준한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연  
기자—박남정 허연  
                  한동림 이정민

디자인—윤정자  
사진—김지옥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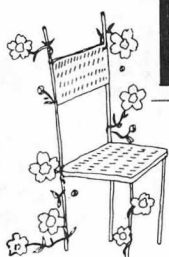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본문 편집 전문

- 본문레이아웃
  - 교정, 교열
  - 편집대행
  - 제작
  - 전산사식
- 책에 대한 사랑과 정열로써 손을 내밀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적셔주는 그런 책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성실성을 바탕으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우연사  
TEL : 314-468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7-1 서교오피스텔 411호

찾습니다

## 편집경력사원

- 제출서류 : 사진이 있는 이력서 한 통과 자기소개서 200자 원고지 다섯 매
- 전형방법 : 서류검토 후 개별 면접통지
- 접수마감 : 1995년 12월 16일(토요일)
- 보낼 곳 : 서울 종로구 건지동 건지사 빌딩 <우리문화>

편집회사

# 우리문화